

요양보호사가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한 성희롱에 관한 연구

임 춘 식
(한남대학교)

이 인 수*
(한서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답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양로시설, 문제행동, 인지기능 쇠퇴, 성적공격, 정서적 괴롭힘

* 교신저자: 이인수, 한서대학교(drinsoolee@hanmail.net)

■ 투고일: 2013.1.23 ■ 수정일: 2013.3.11 ■ 게재확정일: 2013.3.15

I. 서론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를 넘어서면서 바야흐로 한국도 선진국형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09).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젊은 층은 감소하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수발하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소수 전문인력이 다수 노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주거시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인들만의 주거공간으로서, 설비기준과 운영방식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허가하는 복지시설, 그리고 노년층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과의 임대와 분양 계약을 하는 주택단지 등 매우 다양한 종류와 규모로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05년 당시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 경우 130여개 시설에 약 8,00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비해, 2010년에는 양로시설은 285개소,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6개로 증가하고 이러한 주거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도 2만명에 달하여 시설수와 입주노인의 수를 볼 때 5년 사이에 2.5배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1a).

노인주거시설 운영과 관련되어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간호처치나 목욕, 옷갈아 입히기 등 허약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발은 장기요양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반면, 주거시설의 재정지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하지만 노인주거시설 2/3 이상은 농촌지역에 있고 정원 50명이하의 소규모이며(보건복지부, 2011a), 재정이 열악하여 유급직원은 원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5명 이내에 불과하고 지역사회 주민이나 후원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노인주거시설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국고지원이 크게 감소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익사업으로서 장기요양보험 급여항목인 재가노인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병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관리하는 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를 더욱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 전달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즉,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숙식과 활동프로그램 제공을 주로 제공하던 주거시설에서

방문목욕이나 가정간호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이제까지 노인주거시설 필수 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그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주거시설 대부분은 교통과 편의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기에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하며 인적이 드문 상황에서 여성이 홀로 남성노인과 마주할 기회가 높아 지게 된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요양보호사라는 신분으로서 평소 노인들의 질병을 관리하며 신체접촉이 많고 노인주거시설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식사수발과 일상생활보조 등 타 업무 부담에 직면하는 등 업무영역의 모호성이 큰 점이 그러한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요양보호사가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성과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어 근무한다는 것은 노인돌보미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돌보아 줄 가정이 없어 농촌지역 시설에 고립된 노인을 돌보는 일은 고령화시대 삶의 질의 시각 시대에 놓인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며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는 인력의 안전한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근거지가 되는 노인주거 시설에서 마주치는 성과 관련된 돌발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야 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최 일선의 노인돌보미 여성 인력을 보호하는 원초적 단계의 과제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수발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사하였다.

<문제1>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시설에서 활동하면서 노인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경험하도록 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2> 이러한 성관련 돌발상황과 그 영향은 앞으로 노인주거시설 입주노인에게 보건관리는 물론 다양한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인력의 과제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의 성

노인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으로부터 성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년기 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성욕은 남녀 누구에게나 70세 이후까지 유지되고 성생활이나 부분적인 성적 욕구충족 역시 후기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는 누구나 노년기에도 적절한 성생활이 도움이 된다(김태현·한희선, 1996). 노년기 성활동은 쇠퇴해 가는 삶과 위축된 정서에 자신감을 주며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어 노년기 고독감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윤희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김태현·한희선, 1996). 한편 노인의 성은 활력적인 긍정적 요소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노년기 성은 애정이나 성호르몬 분비에 의해 자연스레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적 욕구와는 상관없는 그저 젊어서부터 해온 습성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억지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는 연령차별주의적 방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김태현·한희선, 1996).

현재의 노년층은 많은 자녀중에서 장남이 가족간 결속의 리더역할을 하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자라오면서 강력한 남성다움을 사회속의 긍정적 위상으로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라왔다. 그러한 유교적 풍습이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성은 단순한 생식 행위가 아닌 남자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한 요소이다(김태현·한희선, 1996).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 표출 및 그 충족방식은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인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역시 다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성적 욕구를 당연히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상실감을 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만회하려고 한다. 그러나 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개인 공간이 부족하여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지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성욕구를 표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사기가 저하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심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권복순 외, 1988). 즉 개인생활 공간의 부족, 직원들의 편견적 태도, 삶의 의욕

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 등 현저히 저하된 사회 환경에서 이성과 어울리는 생활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성적 욕구 표출을 함으로서 대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주거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그중에서도 목욕을 시키거나 체온을 재는 등 남성 노인과 근접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영양보호사 및 간호사들은 남자노인들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욕구 표출과 직면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2. 노인주거시설 영양보호사의 고충

성희룡은 영양보호사가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충의 틀 안에서 그 심각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이 심한 노인이 간호처치를 받을 목적으로 입소하며 노인 2인당 1명 이상의 보호인력이 24시간 보호하는 반면, 주거시설은 건강하지만 가족관계나 사회적 문제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의 총체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a;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일반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은 24시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하에 9명 이하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 공동취사를 하며 자유로운 외출과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여성으로서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주거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내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한국의 경우, 최수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0% 정도가 서비스대상으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공격(밀기, 움켜잡기, 붙잡기)을 당했으며, 10% 가량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치명적인 공격에는 물론 흉기를 사용한 강간시도도 포함된다. 복지시설 중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 수십 명이 생활하는 노인주거시설 역시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이 발생한다. 노인시설에서의 문제행동이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종사자나 봉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혹은 다른 노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언행을 의미한다(Levesque, 1993; Pynoos & Regnier, 2000). 외국의 경우 노인주거시설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는 문제행동은 특정장소에 배회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거는 일, 몽유병(perambulatory)을 동반한 수면장애, 성적 공격행위(sexual assaults)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제행동들에 대해 돌보는 여성으로서 온정주의로 대해야 하며 시설내 간호사 이외의 의료진에게 진정제 투여 등의 적극적인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대처하고 평화롭게 종결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안소운 외, 2002). 요양보호사는 식사수발과 목욕 등 다양한 보호를 담당하며 명확한 책임의 경계와 뚜렷한 지침 없이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는 업무모호성이 강하며, 비합리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이타적 직종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일방적인 순응을 전제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과 일방적인 희생강요에 대한 불평을 하기도 매우 힘들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원은 보험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보장되는 반면 주거시설의 신규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된 변화를 맞이하여, 노인주거시설의 재정충당 방안으로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판정이 지연되는 노쇠한 노인들의 일시적 보호 등 노인돌봄비 바우처(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 간병, 병원동행 등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면서도 인지기능 장애가 시작되는 노인을 관리하는 힘든 과정은 열악한 성장배경과 이로 인한 정서적 장애가 심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더욱 심각하다(최혜영, 1995;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이렇듯 모호하고 일방적 희생이 요구되는 시설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소진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하며 결국은 노인에게 큰 홀대로 다가가는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인시설에서의 문제행동은 용인하는 것 못지않게 원인과 대응책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처되어야 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 폭증하는 노인시설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3. 주거시설 노인의 특성

주거시설 노인이 행하는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건강하여 독립적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여 다른 노인들과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은 총 397개소이며 그중 75%는 30~50명 노인이 생활하는 양로시설이고 그 외는 5~9명 노인들이 일반 가정집 규모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생활가정이 대부분이다(보건복지부, 2011a). 노인주거시설은 도심에 소재할 경우 토지가격이나 주민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농촌에 위치하고 주택단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기에, 80%는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지역의 농촌이거나, 국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해 문화와 교통 접근성 면에서 농촌과 유사한 지역이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이러한 곳에 들어와 생활하는 노인들은 배우자 사별, 경제능력 상실, 자녀와의 결별 등으로 고립되어 생활해 온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욕구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 유지,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의 정서적인 접촉과 적절한 여가생활의 추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사기가 저하되고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절하(self-devaluation), 그리고 건강관리의 포기나 소홀로 인해 생존 그 자체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서병숙, 1989). 가정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직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생활하는 양로시설 경우, 입소노인 중 50% 이상이 무료 혹은 실비시설과 같은 저소득층 시설에 거주하는데(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이들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녀나 친인척이 없고 본인의 생계능력이 미약한 무연고 극빈 노인이며 28%가 정신장애나 지체불구, 혹은 시정각장애로 나타나 일반노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거동불편 비율을 보인다. 특히 양로시설노인의 50% 이상이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배우자의 사별, 자녀나 친척과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독신생활을 해왔으며 26%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성관련 돌발상황 가능성을 보자면, 살아오면서 누적된 분노와 좌절을 시설내 특정 여성노인이나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간호사에 대한 집착이나 편력으로 해소하는 성향이 높으며(최수찬, 2005), 특히 여성이 밀착하여 일상생활수발이나 간호처치를 할 경우 오랫동안 참아온 성욕구를 표현하고 신체공격을 시도하면서(오진주 · 신은영, 1998) 큰 충격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닌 위험스런 집단이다.

특히 농촌지역 양로시설에서의 폭력의 발생과 목인은 무례에 관대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확장된 공격성 위계이론(윤경아, 2007)으로 설명된다. 혼잡하지 않고 외진 곳에서 오랜 시간 친숙해질 가능성이 많기에 치명적인 공격이 아닌 한 관대하게 이해되면서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노인은 점진적으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

지 못하고 목격한 노인들도 서서히 폭력이나 성희롱을 행사해도 좋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이인수, 2012 재인용). 그리고 시설거주 노인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대처되지 않고 인내력으로만 수용되는 것이 경로효친이라는 동양적 전통측면에서는 미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방치되어 누적될 경우 결국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어 노인입주자를 냉담하게 대하거나 홀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면서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감정표현을 억제해야만 하는 복지시설 봉사활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심해지는 소진은, 감정, 태도, 동기 및 기대감과 관련된 내적인 부정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느낌이며 질병, 불평, 우울, 심지어는 노인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가하고 무감각해지는 위협적인 요인이다(Maslach, 1982). 경로실천을 가장 큰 덕목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규범상 노인을 돌본다는 것 자체로부터 오는 사회적 칭찬이 소진을 완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8) 다른 봉사활동에서 보기 힘든 초인간적인 노력을 들이면서 점진적으로 소진되기도 한다(안소윤 외, 2002).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전남과 충남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양로시설(A형) 2개, 독립된 개인소유 유료양로시설(B형) 2개, 그리고 약 100m 거리에 9명 정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개인소유 유료양로시설(C형) 1개 등 총 5개 시설의 근무일지를 분석하고 근무일지에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여성을 연구참여 대상으로 정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자는 시설에 대한 애착이나 종교적 신념, 봉사정신 등으로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병원동행, 투약관리, 비상시 응급조치, 목욕 및 식사수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 37~47세 여성 요양보호사 12명을 직접 면담하여 얻은 자유로운 구술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유급 요양보호사로 1년 이상 근무해오고 있는 여성으로서, 시설장 부인이나 친척, 교회 집사로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24시간 활동하거나 병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도 방문하여 노인들 보미 바우처 프로젝트에도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대상시설과 참여자 기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2개(A)와 유료시설 2개(B)는 면(面)지역에 있고,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 1개(C)는 면사무소가 인접한 소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설 A형 중 1개는 정원 69명의 대형이고 나머지 4개는 49명의 중간규모이며 모두 시설장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300평 이상의 텃밭을 직원과 봉사자 및 시설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었다. 또한 5개 시설 모두 시설 안에 교회나 법당이 있거나 타 종교단체 성직자가 방문하여 라운지에서 수요일과 주일 예배 및 기도프로그램이 개설되었는데 시설내 종교프로그램에는 입소 노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목사나 전도사들이 방문하였다. 일상생활 관리면에서 볼 때, 모든 시설이 식사와 청소 및 세탁을 관리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며 체조, 가벼운 운동, 취미교실 등 복지기관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양계장, 韓牛사육 비닐하우스, 전통 발효식품 생산공장, 온실, 자가발전 풍차, 가마솥과 장작불 아궁이 등 지역특성을 살린 독특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가. 접근 및 면담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위 대상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역사적 관찰과 심층면접(채구묵, 2012)을 활용하여 문헌고찰과 당사자 진술을 분석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은 조사대상 당직자 근무일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에게 발생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면담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며 진술내용은 나중에 표준어 문장으로 재정리했다. 면담요원은 사회복지분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으로서,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고 연구목적, 면접의 기본 틀, 면접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에 조사대상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입주노인들에게 부모님으로 호칭하며 연구자, 면담자, 연구참여 요양보호사, 입주노인, 그리고 직원들이 유사가족공동체(여성가족부, 2012) 역할대행(Role Play)에 참여하면서 서로 친숙해진 상태에

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업무일지에 기록된 성희롱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위 연구목적에 제시된 영역을 반영하여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① 업무일지에 최근에 기록된 노인으로부터의 성희롱과 관련된 상황에는 어떠한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었으며, ② 그러한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여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고정된 설문지 양식 없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질문하였다. 따라서 질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대략 <귀하는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성희롱과 관련된 일을 얼마나 자주 겪었으며(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러한 일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귀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시설과 연구참여자 특성

시설				연구참여자	
번호	운영방식	기본서비스	특징적인 프로그램	번호	특성
A	사회복지 법인 무료와 실비 겸용	식사, 세탁, 청소, 축탁의사 검진, 정 기적인 방문 물리 치료, 상근간호서 비스, 목욕서비스 제공	시설장이 인근 교회 목사 로 재직 중이며 시설내 대 형라운지에 수요일과 일 요일 시설노인과 직원, 방 문객이 교회를 개설함. 자 체노래방 운영, 자원봉사 자 초청 주말 파티, 추수감 사제 떡 잔치, 월 1~2회 해 안공원에서의 조개 즐기기, 소규모 농장, 황토 찜질방, 공동작업장 운영	1	42세 고졸 배우자와 1남1녀를 두고 있 으며 시설장이 목사로서 목사의 집사로 서 수시로 숙식을 하며 요양보호사 활동 외 병원동행과 생활관리 봉사활동도 함
				2	37세 고졸 미혼. 시설장이 목사로서 있는 교 회 신도로서 요양보호사 활동 외 시설 영 양사 보조와 물품 구입 등 봉사활동도 함.
				3	47세 고졸. 배우자와 2남을 두고 있으며 생활비를 벌기위해 버스로 출퇴근하며 정해진 시간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함.
				4	38세 대졸 미혼. 시설장이 목사로서 있는 교회 신도로서 요양보호사 활동 외 시설 내 성경공부와 종교행사를 주관함.
				5	40세 고졸. 배우자와 1남을 두고 있으며 시설장 친척으로서 요양보호 외 재무관 리와 텃밭과 설비관리를 도움.
				6	41세 대졸 미혼. 시설장이 목사로서 있는 교회 신도로서 수시로 숙식을 하며 요양 보호사 활동 외 조리와 세탁 봉사를 함.

표 1. 계속

시설				연구참여자	
번호	운영방식	기본서비스	특징적인 프로그램	번호	특성
B	개인 운영 유료	여성노인은 주거棟에 주방이 있어 건강한 노인들이 하루 1회 간식을 취사하며, 시설로부터의 식사제공 혹은 스스로 취사 중 선택하며 비용이 차별화됨. 세탁, 청소, 축탁의사 검진, 정기적인 물리 치료, 상근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여성노인 주거동과 남성노인 주거동이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남자노인들은 소를 사육하거나 과수원과 채소밭을 관리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작업을 하여 생기는 수입을 배분함. 시설장은 대도시 교회 집사로 봉직하며 희망 노인에 한해 일요일마다 셔틀버스로 대도시 교회를 방문함.	7	39세 고졸 미혼. 생활비를 벌기위해 버스로 출퇴근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주일마다 시설내 예배에 참석하여 노인들의 성경공부를 도움.
				8	47세 대졸. 이혼 후 1남을 양육하며 시설장 친척으로서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숙식하며 요양보호사 외 대청소, 세탁, 식자재 구입등 주요 업무를 관리함.
				9	40세 고졸. 배우자와 1녀를 두고 있으며 생활비를 벌기위해 버스로 출퇴근하며 정해진 시간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함.
				10	41세 고졸. 배우자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인근 교회 집사로서 요양보호 업무와 시설내 성경공부와 예배에서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겸함.
C	개인 운영 유료	식사, 청소, 주 1~2회 방문 물리 치료 및 한방 치료, 방문간호 서비스, 목욕서비스	시설내 종교활동실이 있고 외부에서 수요일과 일요일에 인근 교회 목사, 전도사, 스님 등이 방문하여 예배를 봄. 월 50-100만원을 지불하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소수 무연고노인을 실비로 관리하기도 함. 텃밭과 양계장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여 채소와 계란을 자급하며 시설장 가족이 과거에 살던 한옥집이 붙어 있어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 가마솥에서 직접 취사를 함.	11	45세 대졸. 배우자와 2녀를 두고 있으며 시설장 친척으로서 요양보호업무 외 조리, 세탁, 텃밭관리, 병원동행, 노인들과의 외출 및 장보기 동행 등에 봉사함.
				12	42세 고졸. 배우자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요양보호업무 외 주 1회 예술활동 및 외출동행 봉사를 하며 생일파티나 명절 등 주요 행사 때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 함.

나. 성희롱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성희롱은 사회복지시설 내 서비스대상에 의한 폭력과 성희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Straus et al., 1996) 중 성희롱과 관련된 항목을 윤경아(2007)가 한국 노인복지시설에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항목과 오진주와 신은영(1998), 그리고 김지현·서진(2012)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들의 성관련 돌발적인 행동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위 연구에서 제시된 성희롱의 정의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시설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 중 위 연구에서 구성된 항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부분만을 추려내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를 예비 면담하면서 실제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문맥으로 수정한 항목들을 본 조사 면접에 사용하였다. CTS2는 다양한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대상인 노인입주자에 의해 발생한 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언행(모욕적인 말이나 성기 노출 등 행동)과 신체적 접촉(성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기 등)을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위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윤경아(2007)와 김지현과 서진(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시설장과의 예비면담을 통하여 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행동이나 표정(예: 여성의 민감한 부분에 베게를 던지거나 집요하게 바라보는 행동 등)도 여성에게 심한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으로 정의하였는바, 성과 관련된 농담이나 욕설 등 언어적 성희롱, 표정이나 몸짓 등 직접적인 표현이나 접촉은 아닐지라도 성과 관련된 상황을 연상하게 하여 모멸감을 주는 정신적 성희롱,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도구를 닿게 하는 등 물리적 가해행위에 의한 물리적 성희롱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과 대처에 대해 원활한 답변을 하도록 Levesque(1993)와 Ray(1992)의 연구에서 정리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수발자들의 반응사례(예: 충격을 받아 자리를 피한 뒤 당직자에게 보고함, 자원봉사를 그만둘 생각을 함 등)를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과 신뢰도 확보

가. 직접면담자료 분석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이다. 다만, 직접 면담을 하기에 앞서 질문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우선 업무일지를 고찰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개요를 파악하고 직접면담할 연구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업무일지에 나타난 성희롱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고찰하는데 있어, 시설장이나 사무장에게 문의하여 그 상황의 원인과 사후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로 정리되었으며, 성희롱이 발생한 주요 사건을 Merleau-Ponty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Colaizzi(1978)의 방법과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에서 사용된 개방형 코딩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범주화 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범주화된 사건들의 다양한 반응과 흐름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에서 사용된 축 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근거이론은 다양한 관찰자료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범주간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연구방식의 조합으로 업무일지에 나타난 다양한 성희롱 관련 상황 기록과 그에 대한 경험자의 진술 중 성희롱에 대한 주요 반응현상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중심현상으로 범주화 하고, 이러한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 그리고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재적 조건을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진술은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혼합되고 질문순서와 다른 순서로 장황하게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진술을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정리된 답변들을 다시 2-3개씩의 소규모 영역으로 세분하여 그 세분 영역 내에 각 진술 인용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진술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시설장이나 사무장에게 문의한 결과는 성희롱을 행한 노인에 대한 관리방안에 반영되고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에 포함시켜 기술하였다. 그리고 면접에서의 진술은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은 영역으로 포함하여 범주화하고 각 범주내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려서 표준어 문장으로 정리하여 사례로 인용하였다. 특히 노인들로부터 경험한 다양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혼합되었기에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순서로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용어는 시설장에게 다시 확인하여 정리된 답변들을 세분 영역 내 각 인용사례들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나. 신뢰도 확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윤리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과 자료의 다원화, 공동연구 기관 전문가의 조언 및 지지, 연구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전략(이인수, 2012 재인용)을 적용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경우 참여자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진행과 자조모임 및 공동 여가 프로그램과 외출 등에 참여하면서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예술활동 프로그램이나 노인들의 자조모임에 대한 사진촬영을 통해 직원 및 노인들과 자연스런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또한 본 조사 면담후에도 연구참여자가 지역사회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설직원과의 전화 통화나 방문인사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다원화를 기하기 위해 면담녹취자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 명확한 출처가 명시된 보조자료를 사용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일기나 편지, 참여자와 기관담당자와의 면접자료, 현장기록노트, 업무일지, 상담보고서 등 다양한 추가 자료들을 통해 포괄적인 이해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면담만으로는 폭력이 발생한 인과관계나 배경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보충적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직원에게 사건발생 배경과 그 후 관련 노인이나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한 연구의 민감성을 높이고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생애사 연구방법과 시설생활 연구경험이 풍부한 동료교수 1명과 간호사 등 자문진에게 지속적인 조언을 얻었다. 끝으로 연구자가 발견한 개념과 해석의 결과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 푸드뱅크, 지역사회

공동모금회, 지역사회 시설협의회,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교회 등을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하며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상 비밀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면접자료는 사전에 연구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하고, 필사 후 즉시 폐기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정보에 대해서도 연구목적에 필요한 기록 외에는 누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인명과 지명은 모두 익명과 이니셜로 처리하고, 연구논문의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얻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개방코딩: 상황의 범주와 개념

개방코딩 분석결과, 시설에서 영양보호사 여성에게 발생하는 성희롱은 위에 정의된 범주의 상황에서 총 36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우선 성희롱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언어적 성희롱, 정신적 성희롱, 그리고 물리적 성희롱으로 나타내는 바 언어적 성희롱은 여성의 민감한 신체를 언급하거나 지칭하는 모욕적인 말, 성관련 행위를 묘사하는 욕설, 그리고 가까이에서 성과 관련된 음란한 얘기를 함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성희롱은 직접적인 언어는 없지만 특정부분을 집요하게 바라보거나 손짓으로 성과 관련된 암시를 하여 모멸감을 주는 사례가 나타났다(표 2). 그리고 물리적 성희롱으로는 여성의 민감한 부분에 손이나 도구가 닿는 행동, 그리고 민감한 신체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는 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건, 즉, 성희롱이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면담 결과, 비록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만한 중증 치매는 아니지만 약간의 인지기능 장애와 치매 초기 증세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성희롱이 되는 경우, 다른 남자노인과의 대립과 과시욕에서 비롯된 저속한 언행, 그리고 식사수발과 간호처치 도움 등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 노인의 성욕구를 자극하여 발생하는 상황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희롱관련 상황의 범주와 개념

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념
성 희 롱	언어적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분을 언급하는 말	가슴이 크다고 함, 허벅지가 굵다고 함, 엉덩이가 뽕뽕하다고 함,
		성과 관련된 농담이나 욕설	사귀자고 함, 섹시하다고 함, 물 좋다고 함, 아직 싱싱하다고 함, 성과 관련된 쌍소리를 함, 하고 싶다고 말함.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함, 목욕시켜달라고 함,
	정신적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분을 지칭하는 몸짓과 불쾌한 표정	가슴이 매우 크다는 표시를 손짓으로 함, 옷 속으로 가슴이 들여다 보인다는 표시를 손짓으로 함, 입술을 내밀며 키스하는 시늉을 함, 팔을 벌리며 꼭 껴안는 시늉을 함, 가슴부분이나 치마 밑을 바라보며 웃음
		신체가 접촉된 근거리에서 성과 관련된 음란한 몸짓을 함	옆에서 다른 여성노인에게 팔뚝질을 함,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크다는 몸짓을 함. 정액자국을 가리키며 자신을 가리킴. 자위행위 시늉을 함, 나무를 껴안고 성행위 하는 몸짓을 함, 성기부분 바지춤을 계속 만지작 거림
	물리적	여성의 민감한 부분에 손이나 도구가 닿게 하는 행동	가슴부분에 손이 닿음, 허리나 손을 만짐, 베개로 가슴을 누름
		민감한 신체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행동	엉덩이를 움켜쥐, 손을 가슴속에 넣음, 허벅지를 어루만짐
사건 유발 상황	인지기능장애	비정상적인 정서에서의 친근감 표현	고맙다며 몸을 어루만짐, 딸 같다며 쓰다듬거나 손을 잡음, 반갑다고 침을 흘리며 껴안음
		불쾌한 시선	노인을 수발할 때 가슴속이나 민감한 신체부분을 주시함
	균중심리	공동체 의식	여러 명 남자노인이 있을 때 서로 독려하며 남성다움을 표현함
		타 노인앞에서의 과시욕	특정 여자노인에 대해 다수 남자노인이 같등을 빚음, 경쟁심으로 더욱 음란한 언행을 함
	밀착 보호	보호서비스 중의 불쾌한 농담	신체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수발할 때 농담을 함, 누워있을 때 앉아서 수발하면 불쾌한 농담을 함
		신체에 밀착한 상태에서의 장시간 요양보호 서비스	부축할 때 몸을 움켜쥐, 밀착하여 일상생활 보호할 때 신체 접촉이나 불쾌한 시선을 보냄

표 2. 계속

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념
심리적 영향 과 대처 행동	부정적 정서	분노와 좌절	즐거워야 할 기념일에 희롱당하는 모순, 자녀 앞에서의 모멸감, 감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깨는 배신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림, 해줄게 없다는 느낌을 가짐, 활동 중단과 이직을 고려함.
		노인에 대한 비인격화	노인을 밀치거나 팔을 비뚤, 문제노인을 회피함,
	상황악화 및 재발 방지	문제행동 방지를 위한 설득	특정노인 관심집중 회피, 순환근무, 한곳에 머무는 시간 축소
		가족의 보호	상담실로 이동, 다수 봉사자들의 만류와 설득
	문제노인 관리	지역사회 협조	문제노인과 주민의 결연 사업, 유사가족 공동체 강화
		동료노인들의 동행	자조모임에서의 관리, 외진 곳의 동행, 클럽활동 권유
집중보호		행사준비 작업 제외. 다수 봉사자의 식사동행, 요양원 임시 위탁	

성희롱에 의한 심리적 영향과 대처행동 관련 영역에 있어, 부정적 정서, 상황악화 및 재발방지, 그리고 문제노인 관리 등 3개 광범위 범주에서 21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친분이 두텁고 직원들이 지역사회 연고가 있는 점을 활용하여 폭력성향이 있는 노인들을 주민들이 결연사업이나 외출동행을 하면서 정서순화를 돕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문제노인의 정서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수록 관대하게 배려한다는 잘못된 교훈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성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예: 성행위 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움켜쥐거나 갈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 등)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요양원과 정신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조사한 윤경아(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심한 폭력개념(예: 위험한 도구로 공격하거나 죽이겠다고 말함 등)은 주거시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노인주거시설은 중증 치매 노인이 없기에 직원의 통제를 잘 이해하며 특히 퇴소를 당하면 노숙자쉼터나 주간보호소 등 일상생활이 더욱 심하게 통제되는 곳으로 전원조치 될 수 있다는 상담자 경고에 순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70대 후반~80대 노인으로서 체력과 담력이 현저히 낮다〉

장애인 시설은 20-30대 청년들도 많지만 이곳은 70대 후반에 들어와 80대로 넘어가는 분들이기에 일단 과격한 행동은 힘들다. 그리고 폭력의 기미가 보이면 젊은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시설 A 사무국장과의 예비조사 면담내용 재정리).

〈사례 2: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통제에 순응함〉

주민들과 불화가 많아 복지관으로부터의 재가보호가 힘들어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에 들어와서 이런 일 또 하면 퇴소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생활할 곳이 없다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하며 통제에 순응한다(시설 B 원장과의 예비조사 면담내용 재정리).

그러나 여성에게 특히 모욕적인 언행을 경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추정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도구가 닿게 하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계획된 폭력보다는 다른 노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만류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식이거나 인지능력 장애와 평소 언어습관이 작용하여 무례한 언행이 표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이 있는 여성이고 남편과 자녀 혹은 다른 봉사자가 보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감수하는 것이 더욱 큰 심리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주거시설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왕래가 불편하여 수시로 가기 보다는 한번 방문하여 전일(全日)제로 근무하며, 여성 홀로 농촌지역을 방문하기보다는 남편이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전남노인복지시설협의회, 2007)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모욕적인 일을 경험한 후 벗어나서 기분전환 할 대중문화 편익시설도 없고 중간에 귀가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계속 봉사를 해야 하는 고충이 나타났다.

2. 인과관계 및 맥락적 조건

인과관계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한다.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성희롱 상황을 보다 광범위한 범주로 묶어서 인과관계적 조건으로 분석한 축코딩 결과를 근거이론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해 볼 때, 신변위

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답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술내용에서 나타난 성희롱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분류하여 범주화하면, ① 폭력과 성욕구 충족 의도는 없지만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한 친근감 표현, ② 다수 노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답합하여 행하는 외설적인 언행, 그리고 ③ 업무중의 불쾌한 시선과 신체접촉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 사건들을 인과관계적 측면으로 축코딩 한 결과를 각 범주별로 나누어 진술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된 친근감 표현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하는 성희롱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정신보건사회사업장에 비해 폭력성이나 실제 성욕구 충족 의도가 적은 성향을 보였다. 외출이나 여가활동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전제로 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서문제가 설득에 의한 제지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폭력성은 적지만, 점진적으로 치매 초기증세가 시작되면서 노인들이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손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으며 침을 흘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기에, 명백한 성희롱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사례 #1: 옷벗은 상태에서 침을 흘리며 손을 잡음〉

남자노인이 세수를 시켜드리고 얼굴을 닦아드리는데 옷을 벗은 상태로 고맙다면서 침을 흘리며 손을 꼭 잡는데 옆에서 자원봉사 하러 온 학생들이나 주민이 민망한 표정으로 얼굴을 돌리고 나는 큰 수치심을 느꼈다(47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사랑한다며 허리를 껴안음〉

속옷을 같이입히고 침구류를 정리해 드리고 나면 상쾌한 표정을 지으며 팔을 벌려 허리를 감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친숙해 져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다는 것은 알지만 제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나를 껴안는 순간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나. 공동체 의식과 대립에서의 저속한 언행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주거시설 노인들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점진적으로 누적된 분노와 좌절을 시설내 특정 여성노인이나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집착이나 편력으로 해소하는 성향이 높다는 점(최수찬, 2005)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착하여 간호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노인들이 성욕구를 표현하고 신체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오진주·신은영, 1998)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서의 성관련 행동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온순한 남자노인들이 다수가 모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는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데, 친밀한 동료노인이 있으면 어려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라고 믿어 무슨 일이든 서로 이해하고 독려하면서 남성다움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성기를 노출하여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 여성 노인을 괴롭히고 저속한 몸짓과 언어로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들이 유사가족공동체형성(여성가족부, 2012)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상황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인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노인과 봉사자 및 종사자들이 공동체 결연을 맺어 고독감이나 건강악화 등 어려운 일을 개인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서로 아버님이나 어머님, 형제 등으로 부르며 가족과 유사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문제행동까지도 동정심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습성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이다. 특히 친자식이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여성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자상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노인에게는 전문직원이라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와 동일한 관계로 인식

되면서 무례한 언행을 쉽게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저속한 몸짓과 욕설

개개 노인은 온순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두세명이 모이면 수치심을 잃고 담합하여 격려하면서 성희롱이 되는 행동을 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성관련 외국 잡지를 보며 성기를 만지고 있는 일, 자위행위로 담요에 사정한 흔적이 역력한 상황에서 침구류를 정리하는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며 성기를 만져 보이며 자위행위 시늉 몸짓을 하는 일, 그리고 팔뚝질을 하며 쌍소리를 의미하는 저속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 #3: 웃으며 성기를 만짐〉

혼자 있을 때는 순 한 양 같은 분들이 두세명 모여 서로 격려하면서 플레이보이잡지 표지사진을 들고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인지 그냥 만지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39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4: 말라붙은 정액 자국을 바라보는 옆에서 자위행위 시늉을 함〉

이불장 안에 있는 담요에 하얀 얼룩이 있는데 어떤 때는 말라붙은 자국만 있고 어떤 때는 축축이 젖어있다. 역겨움에 코를 막고 담요와 베갯잇과 시트와 속옷들을 다 꺼내는 옆에서 남자노인들이 웃으며 팔을 들어 자위행위 시늉을 하며 서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5: 자신의 부탁을 안 들어 주면 팔뚝질을 함〉

어버이날 행사 때 넥타이를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자 멀리서 팔뚝질을 여러번 하며 중얼거린다(41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2) 여성노인에 대한 과격한 대립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은 그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하는 행동 외에도 남자노인 다수가 평소 좋아하는 여성노인 한명을 중심으로 과격한 대립이 벌어지면서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언행을 하여 옆에서 말리는 종사자에게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남자인 경우 가족과 단절되어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오면서 수치심이 적어지고 누구에게 알려져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과 애정이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커지며,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공간이 적은 곳에서 인접 양로시설에서 찾아오는 남자노인과 좁은 거실에서 어울려 소일하다가 여성에게 집착하며 서로 경쟁심이 생겨 더욱 외설적인 표현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6: 말리는 내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쌍소리를 함〉

건강한 남자노인들은 심심하고 갑갑하여 일어나 서성이다가 해 볼 거라곤 남의 방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 매일 접하면서 친해진 여자노인의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 방안 다른 여자노인이나 평소 시기하던 다른 남자노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옆에서 말리는 내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쌍소리를 하여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45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다. 일상업무중의 불쾌한 농담과 신체접촉

1) 성적농담과 마사지 요구

양로시설은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 외곽 경우, 지역사회 유지와 기관장이 후원회를 운영하며 시설내 휴게실, 화장실, 진료실, 목욕탕, 놀이기구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동사회 공간이기에 양로시설에서 지역사회 진료봉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예를 들어 어버이날이나 입소노인 중 100회 생일이 있는 주말은 인근 종합병원 의료진이 방문하여 건강검진과 진료봉사를 하는데 양로시설 요양보호사도 당연히 참여한다(전남노인복지시설협의회, 2007).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부축하고 간호사가 밀착하여 혈압이나 체온을 재고 의사 처방에 따라 영양제 주사를 투여할 때에, 평소에 매우 온순하던 시설노인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주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주시하며 웃거나 침을 삼키며 외설적인 농담을 거는 일들이 큰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쾌한 시선과 함께 썩시하다고 말하거나 마사지를 해달라는 등 성과 관련된 심한 농담을 하는 것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7: 가슴속과 치마 밑을 들여다보며 섹시하다고 함〉

병원에서 진료봉사 왔기에 나도 당연히 직원으로서 요양보호사 옷을 입고 참여하는데 평소 안 그러던 분들이 내 가슴속이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침을 꿀꺽 삼키며 섹시하다고 한다(39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8: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함〉

영양제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도우면서 허리가 불편한 노인을 눕히면서 다리를 뺀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침을 삼키며 바라보는 모습에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곤 한다(40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2) 간호처치 중의 신체접촉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외곽은 대부분 온돌방으로서 노인들은 바닥에 누워있고 요양보호사는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간호사를 도와 간호처치를 하게 되는데(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 속옷차림으로 온돌방에 남자노인 혼자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앉아서 통증부위를 관찰하고 상처소독이나 혈압측정 등 간호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이 허리, 어깨, 가슴, 목덜미, 머리카락 등 신체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잡고 지탱하여 물리적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양제 주사 투여 시 통증을 참으려고 옆에서 보조하는 요양보호사의 손을 움켜쥐기도 하고 유니폼이 벗기다면서 명찰이 달린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심한 신체적 성희롱이 발생하였다.

〈사례 #9: 엎드려서 그의 손을 내 가슴에 품은 꼴이 됨〉

누가 지나다 우연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피식 웃는다. 감기가 들어 온돌방에 누워있는 분 체온을 재느라 무릎을 꿇고 겨드랑 속에 체온계를 넣은 순간 그분의 손이 내 가슴부위 속살에 닿는다(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0: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잡음〉

일어나거나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몸을 지탱하고 힘을 주려고 허리나 손 심지어는 머리카락 등 무차별적으로 잡는다(40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1: 위생복이 멋지다며 명찰이 달린 가슴부분을 만짐〉

일부러 그랬는지 무의식중에 그랬는지 여하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나로서는 청천벽력이다. 지자체 방문이 있는 날이라 위생사 옷을 입고 다니다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분 혈압을 재는데 갑자기 위생사 옷 멋지다며 명찰이 달린 가슴부분을 만지는데 그 옆에 다른 노인이 만지지 말라고 하니 더 창피하여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다(37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2: 결과적으로 새벽에 70세 할아버지와 부둥켜안고 거닐게 됨〉

관절통이 있는 분을 새벽에 씻기고 옷갈아 입히고 일으켜 세워 식당으로 동행하다가 할아버님이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내 허리를 감싸는데, 화장실에 제때 못가서 악취가 나는 것을 세척하고 옷갈아 입히고 식사하도록 부축하는 당연한 업무 중에 결과적으로 난 새벽에 그분과 부둥켜안고 복도를 거닐은 게 되어 지나는 직원들에게 몹시 민망하다 (38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인과관계는 사건이 일어난 동기와 결과의 관련성을 조명한 것인데 비해 맥락적 조건은 어떠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정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88). 성희롱을 경험한 요양보호사의 진술 중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근거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및 맥락적 조건의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해 볼 때, 평소에는 온순한 남자노인들이 두세명이 모이면 동료가 옆에 있으므로 해서 용기와 과시욕이 생기면서 자신이 아직 젊고 쓸모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심리가 주요 원인이 되고,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지고 밀폐된 공간이라는 상황도 그러한 담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담합행동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면서 친숙해진 몇몇 동료들 사이에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기 위해 성적인 농담을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함께 모여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김태현과 한희선(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노인의 입장으로는 무료한 시설생활의 작은 정서적 돌파구로 기여하여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윤희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회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주치는 여성

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다.

농촌지역이라는 점은 노인 입장에서 볼 때, 방문자도 적고 외출기회도 적은 노인주거 시설에서 여성직원이나 노인에 대한 집착을 무료함과 우울을 달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는 노인들의 심리가 성희롱사건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는바, 다양한 사회적 접촉이 없이 특정 여성에만 집착하여 서로가 경쟁적으로 애정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과격한 대립이 생기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욕적인 언행을 직접 겪지 않고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사례 #13: 옆에서 아직 젊었다고 격려하는 동료를 보며 의기양양해 함〉

자위행위 시늉 몸짓을 하여 함께 있는 노인들이 아직 젊었기에 쓸만하다고 웃으며 격려하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4: 외진 곳에 혼자 있을 때 더욱 심해짐〉

복도 끝 방이나 채소밭에 동료노인 몇 명이 있고 여자 혼자 가서 일을 하거나 노인을 찾을 때 농담이나 신체접촉이 일어나고 현관 앞방이나 라운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당하는 여성이 소리를 질러 누군가를 즉시 불러올 수 없는 상황이 큰 문제다(47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5: 좋아하는 여성노인이 나타나면 활기를 찾고 돌발행동을 함〉

누군가를 항상 집착하는 것이 분명하다. 무료하고 우울하고 생각이 없다가 좋아하고 집착하던 여성노인이 나타나면 돌발적으로 손을 잡거나 성과 관련된 저속한 말을 하여 이성을 잃고 말리는 나도 크게 수치심을 느낀다(40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또한 맥락적 조건에서 볼 때, 노인주거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비해 간호처치와 요양관리 등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설내 총무나 생활지도사를 겸하며 침구류정돈, 프로그램 진행, 외출동행 등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과의 다양한 활동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의 명확한 경계와 뚜렷한 지침 없이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는 업무 모호성이 강하며, 비합리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이타적 직종이라는

점이 노인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라기보다는 항상 함께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무례한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이 정원이나 지역사회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등 요양보호나 간호사의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일어나고,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지만 불평을 하기도 매우 힘들며, 이러한 힘든 과정은 열악한 성장배경과 이로 인한 정서적 장애가 심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이 있는 어버이날 행사나 시설 개원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은 지역사회 주민과 자원봉사 학생들, 심지어는 가족이 방문하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돌보는 노인이 외설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더욱 큰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주거시설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왕래가 불편하여 간헐적으로 숙식을 하거나 남편이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전남노인복지시설협의회, 2007)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을 경험한 후 벗어나서 기분전환 할 대중문화 편익시설도 없고 중간에 귀가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큰 고충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치로서, 직접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물론 동료들도 일단 불미스런 일이 생기는 즉시 모든 여성종사자의 남편이나 자녀를 시설 상담실로 가도록 하고 특히 공격대상이 된 여성 주위를 에워싸며 문제노인에게 웃으며 진정시키는 등 한명이 가족 앞에서 집중적으로 공격목표가 되는 것을 막는 단합된 행동을 보여, 그 노인으로 하여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축되어 자제하도록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6: 세탁과 위생 점검을 위해 방에 들어갈 때 파출부로 오해함〉

내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발라주는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시설 총무로서 책임이 있기에 냄새나는 옷과 침구류를 세탁하려 방과 화장실 위생 점검을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다보니 좁은 방에 남자 노인들 몇이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파출부정도로 생각하고 함부로 듣기 거북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한다(47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17: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식구들부터 안 보게 하고 웃어넘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불시에 노인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우선은 식구들은 원장실이나 상담실로 가게하고 그냥 웃어넘기게 좋게 말하고 마무리한다(38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3. 중심현상에 대한 중재 및 상호작용

중심현상은 연구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조건이며 상호작용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반응하여 마지막 절충된 결과를 도출하는 패러다임(그림 1)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88).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희롱을 가하는 노인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행동과 요양원으로서 전원조치 의뢰, 문제노인의 감시 등이 중심현상으로 범주화되었다. 성희롱을 유발하는 노인을 제지하기 위한 설득과 방어행동으로서 우선은 폭언을 하는 노인에게 부모님 호칭으로써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여 진정하라고 설득하며 유사가족 공동체(여성가족부, 2012) 느낌을 갖도록 하여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폭력발생 장소를 즉시 떠나고, 그 후 타 시설 임상 사회복지사를 초청하여 치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돌발상황을 관찰하도록 하는 조치가 그 예다.

〈사례 #18: 딸에게 이러면 되냐면서 침착하게 제지함〉
아버님이 딸 같은 사람한테 이러시면 되냐고 진정시키면서 주변 동료노인들이 주목하여 설득하고 제지하도록 만들고 그 순간 현장을 떠난다(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그러나 중심현상의 부작용으로서, 모욕적인 행동을 한 노인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관리와 배려가 오히려 더욱 집중되고 다른 노인들에게는 보호가 결여되는 불편이 생기고, 모멸감을 심하게 주는 행동에 대해 제지하기 위해 노인을 밀거나 팔을 비트는 등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적인 부정적 경험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능력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봉사대상자를 병적인 상태로 인식하여 회피하는 마음이 이어지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한다는 피해 의식 하에 클라이언트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전형적인 복지시설 소진(한현미, 1993)을 보이기도 한다. 중재적 조건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노인에게 요양원으로서의 전원조치나 프로그램 참여 제한, 타 노인과의 접촉 제한 등이 중심현상과 다양하게 작용하여 문제노인에게 별도의 상담을 통해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피해 여성 노인에게 투약을 하고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병설 요양시설과 일시적 보호에 관해 접촉을 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19: 요양시설로의 전원을 위해 치매여부를 등급판정 의뢰함〉

여자노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때는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침을 흘리기에 치매가 시작이라는 판단이 든다. 하지만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인 표정이기에 혼란스러워, 치매여부 등급판정이나 병설 요양시설에서의 임시보호를 의뢰한다(47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20: 폭력으로 대응함〉

옷을 갈아입히거나 세수를 시키기 위해 부축하고 밀착할 때 내 신체를 심하게 접촉할 때는 팔을 비틀거나 떠밀거나 세계 꼬집어서 뿌리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38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21: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회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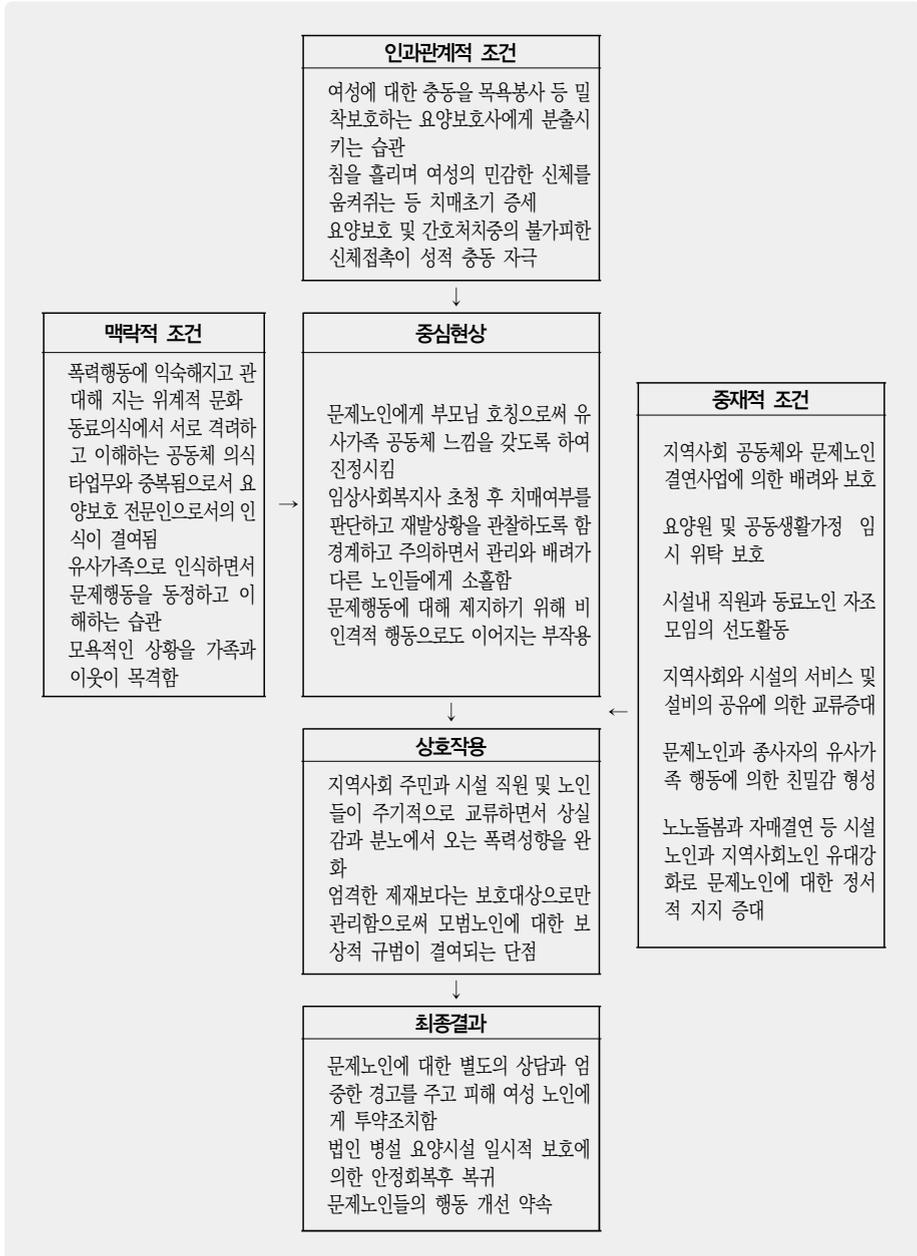
간호처치도중 신체접촉을 한 노인은 그다음부터는 아프다고 해도 다른 불손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회피하게 된다. 결국은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해도 외면하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자책감을 느낀다(39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또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지역사회 노인과의 왕성한 교류와 시설의 공동체 형성으로 문제노인들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폭력성향을 완화하는 노력이다. 바자회나 활동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교류,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지역사회 주민 요양보호 봉사, 복지시설의 설비 및 기능의 지역사회제공,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참

여,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교육 및 시설홍보 등 시설과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폭력성향이 있거나 우울증이 심한 노인을 함께 돌보는 결연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폭력습관을 완화시키는 일련의 전략이 나타났다. 즉, 시설 요양보호사가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보미사업(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11)에도 참여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시설 직원 및 노인들이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상실감과 분노에서 오는 폭력성향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크게 물적 자원과 전문 기능의 지역사회 제공으로 구분되며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는 운동장, 주차장, 정원, 회의실, 강당, 목욕탕 등의 지역사회 제공을 들 수 있고 전문기능의 측면에서는 진료,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직원의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상담서비스의 제공 등이 서로 공유되며 중재적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역사회 중재노력의 단점도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무례한 행동을 행한 노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보다는 많은 사람이 보호대상으로만 관리함으로써 시설내 질서유지에 노력하는 다른 노인에 대한 보상적 규범이 결여되고 폭력에 대한 관대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곧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불편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우하게 살아온 노인이기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하에 관대하게 배려하는 분위기는 무례한 행동을 결과적으로 묵인하여 관대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복지시설내 공격성 위계이론(Levesque, 1993)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목격자나 사법행정력이 적은 농촌지역이나 교외 주거시설에서 식사나 경로행사 등 강력히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경미한 형태의 폭력이나 성희롱이 묵인되면, 그것을 행한 사람은 물론 관찰한 사람도 점점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나 성희롱을 모방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중심현상과 중재조건과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폭언을 동반한 성희롱을 행한 노인은 지역사회와 종사자들이 집중적인 보호와 관찰을 하면서도 문제노인에게 별도의 개별상담과 관찰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주지시키고 협조 요양기관에서의 임시보호로 심리적 안정을 찾아 개선할 의지를 갖도록 한 후 재발 약속을 받고 다시 주거시설에 복귀시키는 등의 균형 잡힌 조치가 최종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성희롱 사건의 패러다임 모형



〈사례 #22: 문제를 일으키면 더욱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모순된 결과〉

무례한 행동을 하면 불이익보다는 보살핌과 배려를 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준다. 문제가 생긴 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주의를 준 후 그런 일이 또 있을 까봐 문제노인을 더 관찰하고 조금만 안 좋은 기색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위로하는 것이 결국은 질서를 지키는 노인은 무관심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 노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돌아가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 당하는 여성 역시 내게 협조적인 노인에게는 냉담하고 무례하게 한 노인에게 더 많은 사람이 집중한다는 것이 결국 그런 일을 제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 불안하다(42세 요양보호사 진술내용 재정리).

〈사례 #23: 미력하나마 균형 잡힌 조치로 대한다〉

노인에 대한 보살핌 못지않게 재발을 막는 통제도 필요하다. 문제를 유발한 노인은 요양원에 일시적으로 보호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거나 개별상담을 통해 잘못을 주의 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야 일상적인 관리를 하며 그것이 보장 안 되면 남자직원이나 봉사자가 동행하며 엄격한 분위기에서 보살핀다. 미력하나마 잘못된 행동도 일깨우고 세심한 배려도 하는 균형 잡힌 조치로 대하지만 불우하게 살아오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노인에게 그 이상 더 심하게 할 수는 없다(47세 요양보호사 진술 내용 재정리)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소도시 외곽 노인주거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성희롱과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의 배경과 영향을 고찰하였다. 성희롱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맥락적 조건은 시설 지리적 조건상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여성 혼자 왕래하는 위험이 있기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동행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보는 상황, 그리고 명절이나 개원 기념일 진료행사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지켜보는 기회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시설 관리측면의 맥락적 조건은 수치스런 일을 당한 여성으로 하여금 즉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적절히 휴식하지 못하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경영상의 열악한 조건이다. 또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지역사회 측면의 맥락적 조건은, 문제를 일으킨 노인에게 관대하게 보호와 배려를 하고 엄격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배려와 보호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일방적인 수용이다.

이러한 절박한 사건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심현상과 중재적 조건의 상호작용은 공격대상 여성을 보호하며 노인에게 부모님 호칭으로써 딸처럼 생각하여 진정하라고 설득하며 유사가족 공동체 느낌을 갖도록 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축되어 자제하도록 하는 대처행동, 그리고 요양원으로서의 전원조치를 위한 치매 등급판정 고려나 임시 보호, 직원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집중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이 나타났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문화편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동료들과의 연대감이나 자기유용감을 얻기 위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모여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김태현·한희선, 1996), 여성 봉사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오진주·신은영, 1998)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이지만, 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일상생활 수발과 간호처치를 하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겪는 당사자는 지인들이 목격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괴담에 시달리고 클라이언트를 회피하는 등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회피하는 대처방법에 익숙해졌기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노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적극성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불신감을 초래하는 단점도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노인주거시설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시설에 비해 운영경비조달이 힘들어 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요양보호행위를 중시하기보다는 사무직과 일상생활관리를 겸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상 총괄적 관리를 하는 경우, 혹은 사회복지나 종교활동지도를 병행하면서 요양보호사라기보다는 친숙한 지인이라는 오해를 사는 것이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감내하기 힘든 돌발행동에 노출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노인주거시설 관리규정상 양로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 2명만을 활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보건복지부, 2011a) 노인입소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여

금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절하하고 각 직종의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나 간호처치 보조와 같은 고유업무를 일상적인 돌봄미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나 무례한 언행에 노출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노년기에 이르러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나약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인에 대한 거부감이 누적되어 안전한 활동만 선호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최소화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식사수발이나 청소, 목욕, 옷갈아 입히기 등 평소 시설내 여성종사자나 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도움 뿐 아니라 전문화된 공동체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예술활동이나 화훼관리 등이 개발되어 노인들과의 동행에 적용되어 보다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도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예장이나 공예장에서 여성봉사자나 요양보호사, 그리고 동반 자녀에게 과학적 지식탐구에 노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이인수, 2012 재인용) 세대간 이해와 정서교류가 활발히 증진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노인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추어 활동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을 전제로 한 주거시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인지기능장애를 요양보호사가 감지하지 못하여 어느 한순간 외설적인 언행이나 돌발적인 신체접촉을 당하여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는바, 외진 곳에서 생활하며 생기는 노년기 고립상황에서 비롯된 정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못지않게 보다 포괄적인 노인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표준화된 전문적 대응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시설 노인들의 성희롱 언행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과 이에 대처하는 행동지침이 표준화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인지기능 장애에서 비롯된 돌발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 혹은 노인종합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와 그러한 기반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정책은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인 양로원이나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원과 단기보호 시설을 획

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지만(보건복지부, 2011a), 건강한 노인들일지라도 주거시설 입소 후 치매 초기증세나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사례가 본 연구에서 고찰되었다. 건강한 노인들만 거주하는 시설이란 존재하기 힘들기에, 현재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문제노인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간호처치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문제노인을 점진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예비적 조치도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문화편익 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거시설에는 요양등급 심사를 더욱 자주 실시하며, 요양보호 대상자로 악화되는 전이단계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주거시설 근무 신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으로부터의 성희롱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남자노인 몇 명이 모여 담합하여 성적 농담을 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여성 요양보호사 앞에서 무분별해지는 습성을 주지시킨 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남자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방안을 훈련시키고 성관련 돌발행동을 하는 노인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전례 등에 관해 사전 학습을 하게 하는 등 대처방안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시설내 여성에게 집착하며 의지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들과 그 여성들이 잘 어울리고 익숙해지게 하는 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성향이 있는 노인 한 명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조 편성하고 간호사와 방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 편성을 하여 주기적으로 말벗이나 일상생활 동행을 하도록 하는 등, 문제노인과 여성이 1:1로 대면에서 오는 긴장과 오해를 완화시키며 장기적인 친화방안으로 관리하는 적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시설과 요양시설이 연계되어 협력체제로 관리되는 연속보호 체계가 농촌지역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장, 그리고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복지법인 운영 대형 양로시설에 소규모 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소 병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한 노인들과 요보호 노인을 2분화하여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로 구분되어 분류하는데(보건복지부, 2011b),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주거시설에서 인지기능 초기증세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일시적

인 제지로만 대처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에, 문제노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계획 집행에 있어 노인주거시설 소유 사회복지법인에 병설하여 시설물 일부를 공유하면 설비충족으로 인정하는 완화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거시설에서의 문제 노인들이 병설 요양원과의 협조체제 속에서 보호관리 됨은 물론, 요양보호사 역시 촉탁방문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접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외곽 등 문화편익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노인주거시설에 공익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등 젊은 남성이 파견되어 요양보호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2001년 이후 병역특례 적용 공익기관으로 인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고 있는 현행 제도(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7)가 더욱 강화되고 전문성이 보완되어, 간호학이나 응급구조,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를 전문대이상에서 이수한 남학생들이 노인주거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것을 근무방식에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상근예비역 파견을 추가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다수 남자노인을 상대로 성관련 돌발상황에 홀로 대처하는 여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 개인은 물론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폭언이나 신체접촉 등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상담과 보호와 아울러 엄중한 경고나 활동 제한 등 반사적인 불이익도 동시에 강하게 반영되는 방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문제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그것이 우범행위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 시 외출이나 여가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결과가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성희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시설 운영지도에 추가되는 등 균등한 개선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어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문화로 인식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제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희롱의 문제점과 우범적 성격에 대한 개별 및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규칙적인 개별 및 집단 지도프로그램이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이라는 곳이 지역사회에서의 우범행위가 정당화 되는 특별한 장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의 발생과 목인으로 무례에 관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확장된 공격성 위계행동 문화를 없애도록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임춘식은 경희대학교에서 문학사를,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서비스이다.
(E-mail: chsrin@hanamil.net)

이인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농학사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인간발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서대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주거시설이며 현재 캐나다 실버타운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E-mail: drinsoolee@hanmail.net)

참고문헌

- 권복순, 이중훈, 정성덕(1988). 양로원 현황과 재원, 건강상태에 관한 예비조사, *한국노년학*, 6(1), pp.79-100.
- 김지현·서진(2012). 노인주거시설 여성봉사자가 경험한 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연구:재인용, *노인복지연구* 65, pp.299-324.
- 김태현, 한희선(1996). 노년기의 성.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 10, pp.89-107.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5월 말 현재 노인복지시설자료실 <http://www.mohw.go.kr/>에서 2008.6.1 인출.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5월 말 현재 전국노인복지시설현황자료실 <http://library.mohw.go.kr/SkyBlueOpen/>에서 2011.6.21 인출.
-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 중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신미화(1996).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안소윤, 김원중, 허영배(2002).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 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4(4), pp.233-244.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2월 말 현재 위민레포트 자료실. http://www.women.go.kr/new_women/에서 2012.3.12 인출.
- 오진주, 신은영(1998). 노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8(2), pp.97-109.
- 윤경아(2007). 반복적인 클라이언트 폭력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 2007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7-14
- 이기순(1994). 양로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이인수(2011). 21세기 노인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 _____(2012). 양로시설 봉사활동 여성에게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pp.182-208.

-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전남노인복지시설협의회(2007). 양로 및 요양시설 실무자 2007년 하계보수교육 워크숍 자료집.
- 채구목(2012).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 최수찬(2005).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실태조사. 서울: 서울복지재단.
- 최혜영(1995). 사회사업가의 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복지관, 병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통계청(2009).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평화종합사회복지관(2007). 사업 종합평가 연례보고서. 서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8). 2008년 5월 말 현재 자원봉사 자료실. <http://www.elder.or.kr/>에서 2008.6.1 인출.
- _____ (2011). 2011년 5월 말 현재 자원봉사 자료실. <http://www.elder.or.kr/>에서 2011.6.1 인출
- 한국노인복지학회(2011). 2011년 5월 말 현재 학술자료실. <http://www.koreawa.or.kr/jboard2.superboard.com> 에서 2011.6.1 인출
- 한국치매가족협회(2005). 2005년 5월 말 현재 치매지식 자료실. <http://www.alzza.or.kr/ezboard/>에서 2005.6.1 인출
- 한현미(199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Burnout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현외성 외(2002).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예풍출판사.
- 홍정실(1995). 재가 및 시설노인의 생활조건과 고독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Arthur, G. L., Brende, J. O., Quiroz, S. E. (2003). Violence: Incidence and frequenc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aults affecting mental health providers in Georgia.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0, pp.22-45.
- Atchley, R. (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 CA, U.S.A.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S, King M(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rane, D. (1986). *Violence on social workers*. University of East Anglis Social Work Monographs.
- Hennessy, C. H. (1993). Modeling Case Management Decision-Making in a Consolidated Long-term Care Program. *The Gerontologist*, 33(3), pp.333-341.
- Levesque, L. (1993). Why alert residents are more or less willing to cohabit with cognitively impaired peers: an exploratory model. *The Gerontologist*, 33(4), pp.514-522.
- Macdonald, G., Sirotich, F. (2001). Reporting client violence. *Social Work*, 46, pp.107-114.
- Maslach, C. (1982). Understanding burnout definitional issues in analyzing a complex phenomenon. In W.S. Paine(eds), *Job stress and burnout*, Sage Publication, pp.29-40.
- Norris, D. (1990). *Violence against social workers: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 Pynoos, J., Regnier, V. (2000).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
-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6). *Annual Reports on the Management, Series 2*, Wheaton, MD, U.S.A.
- Ray, W. et al. (1992). The nursing home behavior problem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47(1), pp.9-16.
- Seefeldt, C. (1987). The effects of preschoolers' visits to a nursing home, *The Gerontologist*, 27, pp.228-232.
- Straus, M. A., Hamby, S. L., McCoy, S.,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283-316.
- Strauss, A. L., Corbin, J. M. (1998).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A Study on Elderly Residents' Sexual Harassments Experienced by the Women Care Workers in Retirement Living Facilities

Rim, Choon-Seek

(Hannam University)

Lee, In-Soo

(Han-Seo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Keywords: Rural Retirement Facilities, Problem Behaviors, Gradual Cognition Impairment, Sexual Assaults, Emotional, Harassment